

193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에 나타난 남성 매저키즘의 의미
-김남천과 한설야를 중심으로 -

한민주

193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에 나타난 남성 매저키즘의 의미 -김남천과 한설야를 중심으로 -

한민주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제국주의 권력 아래 수행된 전향에 작용하는 전향자의 권력과 욕망의 무의식이 소설에서 어떻게 담론화되어 주체를 구성해 내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더 나아가 일반론적으로 전향론의 주체 구성에 젠더 문제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피려는데 있다. 한국의 전향은 특히 '권력의 강제에 의한 전향'에서 권력의 수체가 다름 아닌 일본이 있기 때문에 전향한다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치명적인 양심에 반한 행동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주의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식민지인인 주체가 제국의 이미지적인 권력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며, 제국주의가 또 다른 남근적 권위로서의 이데올로기와 합세하여 식민지 남성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김남천과 한설야의 전향소설에서는 남성 주체에 의해 여성의 몸, 아내의 섹슈얼리티가 발견된다. 남성의 시선으로 발견되는 응시 대상인 여성들의 몸은 세속화와 타락의 과정을 거쳐 구성된다. 이에 권력이 개입하고 그 권력이 반-권력으로서의 자기(self)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의 구성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이 역사에서 영웅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남성 지배적, 가부장적 권력이 붕괴되는 순간에 있다. 남성 권위와 권력의 위기 담론을 여성의 출현으로 재현해내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이로써 가부장적 남근주의와 제국주의적

식민지라는 이중의 권위 속에서의 주체 불안은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적 이미지로 재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곧 남성 주체 자신에 대한 매저키즘적 패락으로 흐르고 있다. 결국은 하나의 완전한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기 위한 오이디푸스의 열망과 불안이 1930년대 후반기 이후 등장한 전향자의 불안과 열망에 닿아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핵심어 : 전향, 젠더, 신체, 섹슈얼리티, 매저키즘, 활력, 파시즘 미학

1. 서론

전향문제는 우리문학에 있어서 1930년대 중·후반을 지나 해방직후 표출되어, 정치적 체제선택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일반화되어 있듯이, 전향의 중심에는 권력이 놓여 있다. 사회의 한 횡단면에 자리하는 욕망은 권력과 교호하는데, 전향에는 轉化라는 즉, 변신이라는 내재적 형식이 존재한다. 그것은 욕망의 변신이자 이동이다. 개인적 욕망과 공동체적 욕망 사이의 변증법적인 역학 관계는 주체의 욕망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주체가 자유로이 욕망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히스테리적인 부적응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전향소설의 경우는 주체의 욕망이 권력에 의한 강제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거나, 자기 성장에 의한 사상의 굴절로 형성되는 것에 따라 행위자인 전향 주체와 각기 다른 양상으로 합치된다.

일본의 전향이 주체적, 능동적 轉化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930년대 '권력의 강제'에 의한 수동적인 轉化를 의미한다. 이점은 전향소설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강제성은 억압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정치와 문학의 괴리를 통한 주체 분열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1930년대 후반에 주체의 정립과 재건에 대한 수사가 남발했던 것은 당대의 문학정신이 불안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1935년 프로문학의 구심체였던 카프가 해산되고, 1937년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더욱 악화되는 정세 속에서 작가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추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작가들은 와해된 주체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하는 문제였고, 악조건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문학적 방법을 모색하면서 창작활동을 전개해야 했다.

기존의 전향문학 연구는 일본에서의 개념 정의에 의거해 전향소설 유형화를 시도한 것¹⁾, 김남천·이기영·한설야 등 카프 소속 작가들의 개별 연구에서 1930년대 후반기 작품을 다룬 것²⁾, 이 시기 현실을 형상화하려던 프로작가들의 한 시도으로써 전향소설을 파악한 것³⁾, 그리고 종래 심리주의 소설로 기법 면에서 주목을 받아 온 '단층'과 소설을 전향 지식인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전향소설의 맥락에서 고찰한 것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볼 때 대체적으로 전향 소설 속의 주체 정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심 문제였으며, 이들에게 있어 이념성과 대치되는 생활의 발견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가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논의는 프로문학으로서의 전향론에만 중점을 두고, 표상적인 변모 과정만을 탐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향 주체의 형성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쳤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보려는 목적을 갖고 시작한다. 전향이라는 정치적 행위에는 전향자인 수체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양심, 불안 등 심리적인 제반의 사항들이 밀그림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
- 1) 김윤식, 「전향사상과 전향문학」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_____, 「1930년대 후반기 카프 문인들의 전향 유형 분석」,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 2) 김윤식, 『박영희 연구』(열음사, 1989)
 조수용, 『한설야 소설의 변모양상』, (국학자료원, 1999)
 장석홍, 『한설야 소설 연구』, (박이정, 1997)
 김외근,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주체 개념의 변모과정 연구」(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3) 권보드래, 「1930년대 후반의 프롤레타리아작가 소설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4)
 김인옥, 『한국 현대 전향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4) 이상갑, 「한국 전향소설 연구」, 『한국 근대문학과 전향문학』(깊은 샘, 1995)

러한 정치적 무의식들은 전향소설가들의 소설이라는 재현을 통해 표상체계로 부상한다. 표상체계에 대한 이해는 재현가이자 재현된 대상물의 인식기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향은 특히 '권력의 강제에 의한 전향'에서 권력의 주체가 다름 아닌 일본이었기 때문에 전향한다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치명적인 양심에 반한 행동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실제적으로는 전향했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비전향이나 준전향적 태도를 고수하며, 중립적 가치와 양가적 태도를 취한다. 식민주의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식민지인인 주체가 제국의 이미지적인 권력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며, 제국주의가 또 다른 남근적 권위로서의 이데올로기와 합세하여 식민지 남성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전향자로서의 등장인물이자 곧 작가이기도한 주체의 위상은 양심적 삶과 생활 사이에서 심리적인 불안과 양가성을 지닌 채 동요했을 것이다. 완전 전향자가 아닌 이상, 경계선 상에서 있는 주체는 갈등과 열망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주체의 갈등(anxiety)은 갈등이자 동시에 반대항에 대한 열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선적인 존재의 심리적 불안과 열망은 전향자인 주체 형성의 중요 인자가 될 것이다.

본고는 전향 주체 형성의 원리를 젠더 문제로 접근해 보려한다. 젠더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습에 의해 구성된 성별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관습적 구성에는 몸과 섹슈얼리티가 개입하게 마련이다. 문학 텍스트에서 남녀의 등장은 당연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립적 구도로 배치되고, 게다가 그 배치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관념이 반영될 경우는 남녀의 배치 역시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띠 수밖에 없다. 우연찮게도 전향소설들이 이런 성향을 몸과 섹슈얼리티로 재현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남성인물들의 주체성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제국주의 권력 아래 수행된 전향에 작용하는 전향자의 권력과 욕망의 무의식이 소설에서 어떻게 담론화되어 주체를 구성해 내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더 나아가 전향론의 주체 구성에 젠더 문제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피려는 데 있다. 대상 텍스트는 193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을 기점으로 한, 김남천과 한설야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⁵⁾ 이는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카프해산과 그 이후의 행보, 특히 전주 사건을 통한 감옥체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텍스트 상 전향한 요소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로 한정짓기 때문이다.

2. 젠더 지향적 서사 구성과 매저키즘적 주체 형성 방식

한국 근대 전향소설의 대부분은 전향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 이 사실은 전향소설이 작가의 전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관찰자이자 전향자의 시각으로 서술되는 전향소설의 권위적 플롯팅은 라캉이 말하는 상징계적 질서인 〈아버지〉에 대한 부정과 타협을 통한 새 시대의 모색을 전개해 나간다. 그리고 양항대립적 구조를 통해 여성혐오중적인 방식이나 남성주의에 대한 병적 집착을 드러낸다.

타자로서의 일상적 삶에 대한 수용은 ‘아버지 되기’라는 윤리적 주체를 정립하게 되고, 타자성을 수용하기 위한 주체의 노력 즉, ‘주체의 희생’이 중심에 부각된다. 이들은 자신이 예전에 부정했던 일상적 삶으로 쉽사리 나아갈 수 없다는 자의식으로 인해 그와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과의 대결 의식은 작품 속에서 ‘아버지’ 혹은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일상적 삶은 가족이라는 형태로 타자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향자에게 있어 〈아버지〉는 곧 〈생활〉이자 억압적인 〈현실〉이다. 구체제의 문화·정치적 규약의 붕괴에 뒤따른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혁명 공동체는 대리 희생자에게 죄의식을 전가해야 했는데, 일중

5) 본고에서 다루는 대상 텍스트는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태학사, 1988) 출판 시리즈물에 실려있는 것으로 한다.

의 '괴물 같은 대역'이 이러한 희생양 역할을 했다.⁶⁾ 정치적 오이디푸스 삼각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받아 왔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무죄로 만들거나 남성의 존엄성과 권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성적 경계선이 흐려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도구로 활용된 것이다.

카프문인들이 '가족'의 발견을 통해 생활에 복귀하고, 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된 연유는 가족이 가지는 의미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카프 문인들이 사상문제로 구금되었다가 전향자로 출옥했을 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대했던 대중들은 어떤 실체로든 남아 있지 않고, 가족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대중들에게서의 고립감과 동시에 외면해 왔던 가족과 생활의 발견은 그들의 여러 대응방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⁷⁾ 그것은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불안을 발생시키고, 그를 동일한 패턴으로 재현한다.

1) 신체 권력 : 육체의 타락화와 건강성 혐오

대부분의 전향소설은 추상적인 현실을 작품에 구현할 때, 그 현실의 표상체로 <신체>나 <여성>을 다루고 있다. 젠더와 신체,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당대 사회의 규범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인간의 본능적 욕망조차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젠더, 신체,

6) 린 헨트, 조한욱 역,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맨스』(새물결, 2000), pp. 30~32. 참조.
7) 전향의 내적 요인에 주목한 사람이 요시모토 다카야키(吉本隆明)이다. 그는 권력에 의한 외적 강제를 전향의 주 요인으로 보는 종래의 전향론에 대하여 '대중으로부터의 고립감'이야말로 전향의 가장 큰 요인을 형성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향이란 '일본의 근대사회의 구조를 총체적 비전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인텔리겐차 사이에서 일어난 사상변환'이라 규정한다. 그 구체적 동인이 바로 대중과의 연대감으로부터의 고립이다. 일본 지식인의 경우 국민 대다수와의 연대감에서 고립된다는 형이상학적인 의식면에서의 두려움이 탄압, 박해, 고문 등과 같은 형이하학적인 요인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시모토의 '고립감'은 전향의 주요 매개고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우리 전향소설에서도 역시 주제 형성의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吉本隆明, 『轉向論』, 『예술적 전향과 좌절』, 미래사, 1959, p. 168. 참조)

섹슈얼리티는 복합적으로 교직되어 주체를 형성하는 주요 동인이 된다. 푸코의 말대로, 이 가운데는 권력이 있다. 전향소설에서는 한때 전향자이었거나 지식인인 남성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변질된 전향자를 바라보며 해석의 권력을 행사한다. 푸코가 말한 감시의 체제 아래 놓여 있는 신체는 권력의 장으로 이용되고, 규율 체계 속에 생체를 해부해 들어간다. 식민지 제도적인 규율체제에 따라 종속된 신체에 대한 언급은「처를 때리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처를 때리고」가 라디오 체조의 호령 소리에 혼란스러워하는 차남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끝을 맺고 있듯이, 차남수는 신체를 체도의 관습이 기록되는 장소로 만드는 '체조'의 호령소리에 따라 몸을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생체 권력적인 신체는 이미 강압적으로 카프 해체를 맞이해야 했던 전향자들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육체에의 가치 부여는 윤리적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성 신체를 통한 전향의 표상은 「경영」 「맥」에서 오시형의 '국민복'이라는 옷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의복에 의한 신체·정신의 변화 재현은 「포화」에서도 나타난다. 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나'는 "이런 때 일수록 우정이 필요하네"라고 반복해 말하는 그의 친구인 김기범의 변화를 '국민복'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기범은 '전향자대표'로 '국민복'을 입은 '똥똥한 몸집'의 사내다. 그런 친구이자 농료를 바라보는 '나'는 '현기증'이 일 것 같다. 주인공 '나'가 느끼는 그러한 이질감은 이제 김기범을 '육중한 국방색의 몸똥아리'로 사물화해서 언급하는데 이른다. 남성 대 남성으로 재현될 때 전향자의 몸은 비전향자에 비하여 기름지고 육중한 체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설야의 경우, 「태양」은 그가 출옥 후 발표한 첫 작품으로 감옥에서의 상황과 출옥 후 귀향하기까지의 심경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저안'으로 표현되는 감옥에서의 생활은 '한조각의 햇볕에도 예민해지는' '몸똥이 없는 커다란 머리만 가진 한 개의 괴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높이 날아오를 듯이 팔도 휘저어보고, 팔자걸음도 걸어보면서 일년 반 만에 다시 찾은 '너른 세상의 자유'를 실감한다. 비록 한때는 사상에 경도

되어 세상의 변혁을 꿈꾸기도 하였지만 일년 반의 수감생활은 예상치 못한 고통이었다. 구속과 수감이 가져온 삶의 변화는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직생활로부터 고립을 뜻하는 것이었고, 이는 극도의 소외감과 '혼자'라는 외로움이었다. 그러나 '저안'에서 그토록 햇볕과 넓은 세상을 소원한 나의 형편은 그곳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마당 한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는 닭장 안의 닭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닭장문을 열어 닭들을 풀어준다. 이는 감금으로 억압되어 있던 신체에 대한 해방을 재현하는 것이다. 전향자의 몸과 비전향자의 몸은 그 건강 여부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젠더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남성우월성의 절대화된 이데올로기가 여성에 대한 심층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의 징후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남자다움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은 우선 여성의 신체에 대한 가시적·비가시적 폭력에서 초래한다. 그런데 전향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인 남성 주체는 나약하고 생활력도 없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다. 남성은 활동적 주체이지만 여성은 수동적 대상이라는 젠더 지향적인 이분법의 관계가 역전된다면 그 의미론적 층위 역시 달라질 것이다. 가령, 남성은 나약하거나 여성화되어 있고 여성은 강한 경우, 게다가 남성은 관찰만 하고 행동의 주체는 여성인 경우가 그런 전복적인 관계의 구조화일 것이다. 물론 식민지 상황 전체를 총괄해 볼 때 이런 전도적 젠더 구조는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과 전향소설에서의 그것에 차별을 지을 수 있는 점은 이념적 타락과 전향의 자기 애증을 여성이라는 대상에게 투사한 자기 연민의 심리적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남천의 경우, 전향의 타락상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다. 「소년행」계열에선 주로 '누이'의 신체를 통해 그 타락상을 비판한다. 소년은 순수한 시절의 누이가 생활로 인해 타락한 신체와 정신을 갖게 된 데에 혐오와 증오의 태도를 표출한다. 그리고, 독서회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제퇴선」의 박경호는 의사시험 준비도 중단한 채, 기생인 향란과 '치정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그는 향란과의 관

계가 그녀의 모르핀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또한 현실에 대한 일종의 항의라고 자기를 합리화한다. 그에게 향란의 몸은 타락한 현실의 한 징표로 읽혀지고, 경호 자신이 선도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이외에도 한 설야의 소설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전향 작품에서는 양향대립적인 젠더 구조의 형식을 취하며 남성/여성의 신체를 '비전향/전향', '순수/타락'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작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임금」, 「이녕」, 「종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똥똥한 품/가난뱅이', '지방질적인 안해', '안해의 무지하게 똥똥한 몸집, 전진벽 고집통으로 생겨먹은 오골배지 이마패기 혈색 진한벼어이드르한 낮바대기/손가락만씩한 주름이 엉겨잡힌 이마'에서 보여지듯 기본적으로 아내와 남편은 신체상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단순히 신체상의 대조를 묘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양향대립적 대조는 서사 진행에서 나약하고 약질인 남편의 무능함과 거세고 역센 아내의 생활적임을 병치적으로 구성한다. 전향자인 남성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여성들의 '지방질적'인 신체는 생활력이 강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념상 세속화된 신체이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는 부끄러움의 징표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파도」에서는 건강 담론에 대한 부정으로 제시된다.

그는 무심코 앞에 걸린 거울을 드려다 보았다. 파리한 얼굴이 그안에 있다. 이전에는 그래도 기름끼가 돌고 불편에 살이 조금 붙어있었는데 안해를 얻고, 제 살림이라고 차리게된-그러니까 마땅이 이전보다 편안해야 할 오늘에와서 더욱 가름하게 된 것이다. 하나 어텐지 모르게 그의 맘을 끌어단이는 얼굴이다. 침울한 표정, 그것도 하고이찮다. 맑게 개일 택이 없는 오늘의 얼굴인 것이다. 그는 거이 무의식하게 웃통을 벗었다. 갈비가 앙상하게 들어났다. 배가 훌쭉하고 허리가 흐릿하다. 하나 도야지같은 무리와 건강이 없는 것이 당행이었다. 그몸은 역시 탐스러운 것이다. 그는 끝내 바지까지 벗어버렸다. 사루마다 하나만 걸친 날나리뼈가 앙상한 사나이 하나가 거울 속에 있었다. 그는 자기요 또 자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볼꿀없는 이 사나이가 보기 좋게 저자신을 탁 들어 내는 것이 어

간 통과하지 않다. 그는 부지중 빙긋이 웃었다. 그리며 그는 자기의 몸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거울에 비쳐보고 있었다. 자기로도 엽매 보지못하던 침보는 몸인양 싶도록 차곡차곡 자기의 몸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p. 767)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리한 얼굴'은 '맑게 개일 택이 없는 오늘'의 '얼굴'이다. '건강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향자의 몸이 자신의 양심과 윤리적 가치에 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성찰의 도구인 거울을 매개로 하여 '뼈가 앙상한 사나이'인 자신의 모습을 보기 좋고 흐뭇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담론이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술집」에서도 역시 드러난다. 한민은 건강으로 표현되는 육체를 죽이고 있다. '이 건강이란 놈이 나자빠질 때까지, 거꾸러질 때까지 술을 마셔라.'라고 하며 자기의 건강을 미워하지만, 그의 과음은 도취의 지경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 건강을 파괴할 따름이다.

근대 이후로 여성의 신체는 윤리적 타락의 징표로 읽혀져 왔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전향을 여성의 신체 타락으로 표현해 내는 전략과 맞아떨어진다. 여성이라는 타자를 타락화하는 과정은 제국주의적, 남성우월주의적 주체의 순결성·완전성에 대한 옹호⁸⁾이자 동시에 타자화된 주체의 타락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로지 제국주의적, 남성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패배한 남성 주체 자신의 주체 재정립은 사도-매저키스트적 쾌락을 통해 다시 세우기 전략으로 나아간다. 여기에는 반듯이 성적 권력 관계의 역학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2) 성 권력: 주체의 무력화와 섹슈얼리티 혐오

전향소설에는 지식인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문학에 관심이 많거나, 글을 쓴다. 문제는 그들이 한결같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는 데 있다.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들은 방관자에 불과하고 지식인

8) David Spurr, 『The Rhetoric of Empire』, Duke UP, 1993. 참조

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사회적 역할 분담이 주어지지 않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가 없는 사회에서 지식인의 내면세계는 심히 불안과 초조와 신경질적인 반응이 서로 상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삶의 현장에 대한 시각은 냉소적이고 냉담할 수밖에 없다. 생활을 발견한 전향자인 남성이자 남편들이 천편 일률적으로 생활의 문제보다 아내의 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남성성의 부재는 가족 내 아내와의 성 관계에서 성적 의욕의 상실과도 연결된다. 무기력과 우울, 불안과 초조는 급기야 심리적인 박탈감과 신경성 질환 증세의 증후군들로 발전하여 나타난다. 문학 작품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병이 사회 병리학적 현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현실에 대한 냉소와 냉담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김남천의 「처를 때리고」의 주인공 남수는 변호사인 허창훈을 패턴으로 삼고 옛날의 동지인 준호와 함께 출판주식회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가 준호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하여 부부싸움이 벌어지자 아내는 남편을 철저히 비판한다. 아내에게 ‘애는 운동에 방해가 된다구 수술을 해서’ ‘불구자를 만들’어 놓은 뒤 성애 마저 불구가 되어 버린 이 부부관계는 관계만 남은 꼴이다. 그러한 그녀가 남편 남수에게 성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 같다. 남수는 자신의 동지인 허창훈이 아내에게 느꼈던 섹슈얼리티는 모든 남성이 느끼는 본능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정당화하려 노력한다. 남수가 조명한 남성들의 섹슈얼리티란 그 어떤 관계도 무시되는 본능에의 충일성이다. 그런 본능의 정당성은 동료인 허창훈을 정당화하고, 그에게 도움을 받아온 남수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한다. 남성중심주의적 민족주의나 파시즘에서 섹슈얼리티는 거부의 대상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제애이자 동료들간의 동지애가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9) George L. Mosse, 『Nationalism and Sexuality』, Howard Fertig, 1997, p. 66~80
참조.

운동의 이념상 아이 생산을 거부하고, 감옥에서조차 섹슈얼리티를 거부하는 철저한 운동가의 면모를 지녔던 남수가 도리혀 감옥 밖의 세계에서는 '의치증'을 보일정도로 섹슈얼리티에 경도되는 불건강한 성을 보여준다.

「이런 안해 (혹은 이런 남편)」에서 아내인 난주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남편과 의사소통을 시도하기 위해 유혹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나'는 못 남성들이 사모하는 미모의 영화배우인 아내의 몸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는 그에게서 남성성과 성욕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그나마 목소리가 부재하고 오로지 시선만으로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그이기에 아내가 그의 시선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매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인공 '나'에게 이러한 불감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으로 순회하던 극단에 있던 난주의 몸은 순결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에 대해 '나'는 어떤 거부감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난주의 육체에서는 '불순한 감각'이 느껴지고, 밤마다 불쾌와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나'에게 난주의 몸은 몸서리가 쳐질 정도의 혐오감을 느끼는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성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이들의 전도된 관계는 '계집이 할 것을 사내가 하는' 것으로 살필 수 있다.

한설야의 「파도」에서는 “아직 어디서 솟는지 언제 미쳐버릴지 알 수 없는 머질줄 모르는 정열이 자기의 몸에는 남아 있는” 데도 그 열정을 아내와의 치정 싸움에 탕진해 버리는 주인공이 “제가 시방 볼풀없이 무엇에게 패배당하고있는 것은 가릴수 없는 사실”로 실감하고 있다. 선배의 주선으로 돈 많은 이혼녀와 결혼을 한 명수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폐쇄적인 생활을 한다. 그는 누구의 방문도 허락치 않고 심지어 아내의 외출마저도 금지하는 심각한 의치증을 보인다. 반평생을 누구에게도 정 붙이지 않고 운동에만 힘써 온 명수로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이상 완벽하게 변신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명수의 태도는 자신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심리에 기인한다. 명수의 불안감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그는 이를 아내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잤다왔다거나 안잤다왔다거나해서 끝내 맞드리쌈이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랑쌈인데 그도 해갈수록 심해져서 침은 기껏해야 안고몽개든 것이 차차 손찌검이 되고 낭중은 머리채를 잡아채고 또 머리를 박박 쥐어뜯기까지해서 안해의 머리가 아닌게아니라 칠월칠석날 까치대가리처럼 어설괴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슨 짓을 해서든지 기운이 시진해서 나자빠지게되고야 명수는 직성이 풀린다. ……그리며 명수는 그만 어쩔바를 모르는 사나운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제몸이겠든지 안해의 몸이겠든지 하여간 어느 것이든지 양단간 으스려줄 듯이 제몸에 힘을 주고 이까지 악물어본다. 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안해는 점점 더이뻐보이고 귀여워진다. 오랫동안, 실로 오랫동안 아무데도 기우릴 수 없었고 또 불붙어도 보지 못하는 제가슴에 불을 달아서 보기 좋게 태여버리고 싶도록 명수는 모진 충동을 받는다. (pp. 763~764)

명수의 의치증은 하다못해 집 앞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로까지 확산되어 항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이 작품은 현실에 순응하는 자괴감이 의치증으로 나타난다. 아내에 대한 주인공의 병적 집착과 가학적 행위는 자신의 의지가 실현될 통로를 차단 낭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가학적 사디즘은 ‘양단간 으스려줄 듯’이 ‘제가슴에 불을 달아서 보기 좋게 태여 벌이고 싶’은 매저키즘적 충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작용 한다.

「중두」에서 남편은 성적으로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아내는 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불만을 토로한다. 주인공 경구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텔리로서 감방에서 출소한 인상을 갖게 한다. 집안에 들어 박혀만 있는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 때면 아내가 하는 일을 종종 도와주었고 바느질 솜씨도 아내보다 훨씬 좋다. ‘계집이 할 일을 단지 돈벌이 못하는 탓으로 대가리 커다란 사내 대장부가 하고 있는’ 열등감과 무력감은 경구 자신의 무의미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자기 무의미성에 빠져있는 인물이기에 아내와의 성관계에 있어서도 정력적일 수 없다. 아내와 경구의 욕망의 수위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아내에 대한 의무감은 경구를 자굴감에 빠지게 한다. 까닭은 경구가 실질적인 생활력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그의 아내가 모든 생활의 불만을 중국엔 ‘골골한 남편’의 성적 기능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하기 때문이다.

「이녕」에서의 민우는 ‘거기서 나온지도 벌써 거이 반년’이 된 전향자이다. 그런 민우에게 아내는 ‘남의 일 다 알안곳 할것없이 집안일’에만 신경 쓰라고 하며 ‘살아갈 연구’에 힘쓸 것을 종용한다. 민우는 ‘남편들이 민우와같이 나랏밥술이나’ 먹고 ‘보호관찰소’의 주선으로 대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향자들의 아내들과 자신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곤 한다. 그러면서 민우는 끝없이 아내와 이웃여자들을 세속화시킨다. 기본적으로 아내와 민우는 성격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는 세속화된 아내를 ‘약자’라고 부르고 업신여긴다. 아낙들은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곳’으로 감옥을 생각하며, 전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비록 취직운동을 하는 중이기는 한 민우이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부정성을 갖고 있게 된다. 아내가 예로틱하게 굴러치면 ‘민우는 까닭없이 이마에 땀줄이 선다.’ 그는 아내의 유혹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러 몸이 아프다고 하며 거부할 방법을 강구한다. 이런 민우가 원하는 것은 ‘따뜻한 가정’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념이다. 거기에서는 ‘달과 같이 차고 수정과 같이 맑은’ 그 위에 이루어질 정령과 인정과 풍속이 있다. 민우가 원하는 것은 결국 관능적인 성이 아닌 승화된 성이다. 따라서 이를 알 까닭이 없는 아내와 민우는 자연히 성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향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먼저 주인공들은 작품에서 2년에서 7년 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감한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전향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전향자임을 파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이 투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 이들은 이와 같은 투옥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 역시 심각한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향자들은 소시민 지식인으로서의 허약성이나 유약함을 공통된 '성격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는데, 이와 같이 허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의 근본원인은 물론 전향이라는 외적 강제, 즉 전향 체험에 의한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남천의 작품 「속요」의 한 장면은 전향자들의 이러한 정신적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는 벌써 십년 가까이되는 옛일이지만, 학생시대에 사회운동관계로 새벽에 경관에게 수색을 당한 이래, 이렇게 갑자기 누가 소리를 치든, 또 난데없는 발자국소리나 칼자루소리가 나면, 짹짹 놀래는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옥탕속에서 누가 알은 채를 해도, 경덕이는 그것이 마치 경관인양, 그리고 자기가 십년전 옛날처럼 무슨 사상관계에 관련하고 있는 양, 심한 착각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부끄럽고도 또한 몸에 해로운 버릇이었다. (p. 290)

고문이나 구금에 대한 공포와 강박증은 전향 후에도 여전히 주체의 신체에 남아 그의 '몸에 해로운 버릇'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전향자들이 술과 아편, 매음에 탐닉하는 등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들이 정신적으로 훼손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인공들의 정신적 허약성 또는 불건강성은 생활 세계 속에서의 모색이 좌절되어 가면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지나친 자의식 또는 현실에 대한 패배감이나 회의로부터 자기방기나 심한 우울증, 불안감, 증오감 심지어 광기증세까지 보이는 등 병적 자의식과 환멸감이 주인공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대개의 전향자적 인물들은 산책자의 기능을 하며 자신 이외의 속물인과 전향자들을 관찰한다. '어슬렁어슬렁 거닐기를 좋아하는' 나약한 남성 전향자들의 무기력함은 갈등과 열망의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 의식의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3. 활력vitalism의 윤리학: ‘강한 주체’에 대한 열망

남성적인 생식력과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강자로서의 힘에 대한 지향과 더불어, 젠더 지향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전향론은 파시즘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다. 그런데 파시즘은 남성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압축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향소설에서 전향자인 남성은 나약하고 여성성을 지닌 여성화된 남성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들은 여성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이용해 실패한 남성을 다룬다. 이들의 권력 관계 속에는 ‘매저키즘과 여성혐오증의 신비한 혼합’이 있는 것이다. 전향자이자 서술자인 남성 관찰자들은 매저키즘적인 서술을 통해 식민지적 억압을 드러낸다.

문학 비평은 대개 두 가지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로 여성성과 남성 매저키즘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다.¹⁰⁾ 매저키스트적 인물에 대한 첫 번째 방식의 독서는 성적 자극으로서의 매저키즘에 대한 프로이드의 논의로, 우리는 어떤 매저키스트적 남성 인물이 그의 분명한 남성성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문화의 이분법적 구조를 반영하는 젠더의 구조에서 여성적인 입장을 차지한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프로이드가 여성적인 매저키즘이라 부른 것을 체현한다. 남성 매저키스트에 대한 두 번째 독서 방식은 사회사에 대한 페미니스트 서술에 닿아 있다. 매저키스트적 남성 인물은 여성의 잔인성과 남성의 허약성에 대한 가부장적 신화 내에서 여성의 존재가 폭력적으로 억압된 것을 정당화한다. 남성 주체의 매저키스트적 욕망은 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부정성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나르시즘적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작가이자 인물들의 매저키즘적 글쓰기는 전향소설에서 남성주체를 비정력적이고 생기없는 인물군으로 표현한다.

10) Carol Siegel, 『Male Masochism - Modern Revisions of the story of Love-』, (Indiana UP, 1995), p. 23. 참조. 전향소설에서 활력vitalism이 이데올로기처럼 작용하고 있는 방식을 동반자 작가인 이효석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이효석의 전향소설에 나타난 신체의 정치학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02 하반기)

전향 소설에서는 억척스런 아내와 나약한 남편 상이 두드러진다. 감방 체험의 수용 이후, 일제의 사상통제로 말미암아 계급성의 표출이 제한 당하면서 전향작가들의 인물이 가정에 칩거하지 않을 수 없게됨에 따라 여태껏 세계의 문제에만 관심을 쏟아왔던 이들이 경제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무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능력의 부재는 가정내의 역학관계에서의 부권의 실추를 초래한다. 전향자들은 생활 세계 속에서 무기력하고 권태롭게 생활을 영위하며, 생활적인 것에서 도태되어 있다. '감옥에서 나온지두 벌써 삼 년이 되건만 쌀 한 말' (『처를 때리고』, p. 331) 사오는 법 없으며, '옛날에는 그래도 무슨 회니 무슨 모임이니 강연이니 대회니 허고 쏘대니' (『임금』, pp. 77~78) 더니, 이제는 거리의 방랑자요, 룸펜이 되어 있다. 이들의 아내들은 '남들은 콩밥술이나 먹고 나오면 오허려 정신을 버쩍 차리고 살 일에 골몰' (『숙명』, p. 727)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남편들도 생활 궁리에 빠지길 원한다. 『임금』의 남편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며 매음부에게로 가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든다. 여기서 매음부와 동일시는 돈과 성적 거래를 하는 매음과 이념과 생활과의 교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가난을 한탄하고 짜증을 내기라도 할라치면 "이년아 그게 내죄냐 세상의 죄다. 나를 미워하지 말고 세상을 미워할 줄 알아라." 라며 자신의 책임을 미어버리려 한다. 이러한 무생활자이자 목표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전향자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은 '활력', '힘' 같은 것들이다.

소렐(Sorel)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뿌리가 비합리적 힘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삶의 모든 조건 속에서 본능을 강조하는 경향이나, 인간의 욕망, 정열, 정신적 활동을 바꿀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에의 소망 등이야말로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한 원천이다. 강렬한 관능과 야수성, 이것을 통해 전면화 되는 것은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불가능한, 파괴와 소모의 충동이며 허무에의 지향이다. 이 운명론적 허무주의, 비합리적 힘, 파괴를 통한 새로운 질서의 건설에 대한 강렬한 충동 역시 파시즘 미학의 주요한 특성이다. 이런 이론적 특성들과 함께 김철¹¹⁾은 병적인 남성주의에

의 집착과 여성혐오증, 비합리적 충동에의 이끌림 등을 파시즘 사회가 보이는 병리적 현상들로 소개하고 있다. 「숙명」에서의 무생활자인 치술이 '빠가 휘어지더라도 버티는 근기'를 염원하는 것이나, 「포화」에서 살아있음을 감각적으로 느껴보고 싶은 충동 같은 것은 치열한 살아 있음, 생애의 욕망들이다.

치술은 제몸을 돌로 각 매따박고 싶도록 어디랄게 없이 굳질굳질 한 것을 느꼈다. 어찌서 살려고 살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빠가 휘어지더라도버티는 그런 근기가 없을가. 치술이 자신도 그렇게 끼지는 오죽지 않은 위인은 아니나 위낙 해 바래기처럼 대를 만나야 기를 펴고, 안해와 같이 언제 어느때 무슨 일어든지 즐기치게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숙명」, p. 734)

나는 종로를 스스로 걸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내 발로 아스팔트를 차면서 그리고 내 옆을 지나가는 늙은이 젊은이, 계집 사나히의 체취를, 내 코로 직접 맡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반다시 내의 건강을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뿐만은 아니었다. 내가 열만큼이나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있듯이 남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있는가, 그것을 감각해 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더 심각하였다. (「포화」, p. 130)

이 밖에도 많은 전향 소설 텍스트들은 모두 싸우고 싶은 충동들을 통해 강렬한 생의 욕구를 열망하는 남성들의 심리를 재현하고 있다. 이들은 '약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삼십년동안 세상에서 받은 체힘'에 울분을 토하며, '자기의 약한 성격을 찢어발기고' 싶어하며(「이녕」, pp. 42~43) '찢어발기고 싶다고 할까' '죽이고 싶다고 할까' 하는 '잔인한 충동' (「파도」, p. 753), '싸우고 싶은 충동' (「모색」, p. 120) 같은 광기적이고 폭력적인

11) 김철, 「김동리와 파시즘-〈황토기〉를 중심으로」(『현역중진작가연구』, 국학자료원, 1999) pp. 251~270.

충동을 욕망한다. 또, 「이녕」과 「보복」에서는 '범 잡아먹는 주지가 되어라'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제시된다. 이처럼 강자, 우열한자에 대한 예찬은 우생학적 담론의 폭증을 이룬다. 1930년대 중반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우생학적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우생학적 논리의 확산과 국민우생법의 제정은 근대적 의료화가 초래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확정 문제를 극단적으로 강화시켰다. 특정의 유전성 질환자만이 아니라 빈민, 실업자, 불량아들조차도 우생학적 관점에 의해 악질 소질의 보유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¹²⁾ 우생학적이고 강자만이 살아 남는 현실 속에서 강력한 힘에 대한 열망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광기적인 폭력의 형태로 표출되어 재현되기도 한다. 「보복」에서 종태는 사랑하는 일곱 살 난 딸 순이를 잃어버린 뒤, 돈도 없고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광기적인 폭력 행위를 자행한다. 그는 권세 있는 집의 어린아이를 유괴하여 목졸라 죽이려 한다. 이 작품에서 종태가 보이는 증오는 생의 욕구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수반하는 것이다.

사회적 소외 그룹으로서의 전향자들의 불안, 궁지에 몰린 이들의 현실에 대한 증오, 상실 의식에서 비롯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와 속죄양을 향한 맹렬한 적의로 희생양을 요구하는 파시즘의 혁명적 대안은 이러한 증오와 적대감을 여성의 역할에 부과하는 선행의 이중성 및 남성권위주의의 전략이 된다. <남성>이 되기 위한 어떤 남성의 실패는 <남성성>의 온전한 비전으로 부활하기 위한 모색의 시도였던 것이다. 분열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나약하고 여성적인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 정력적이며 강인함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관념이 심미화되는 방식은 「이리」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액자형식을 취하며, 어느 후미진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세계를 그리고 있다.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횡행하고 있는 당시 현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통하여 인간 내면에 숨쉬고 있는 본성 문제를 파헤쳐, 인권문제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심리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악'에

12) 김진균·정근식,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7), pp. 212~215.

대한 강렬한 욕구를 탐구하고 있다.

악(惡)이든 선(善)이든 간에, 세상을 송두리째 삼켜 버릴 듯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대하고 싶다. 반드시 피로한 신경이 과격적인 자극이거나, 충격이거나, 그러한 색다른 맛을 구하여 보고 싶다는, 엽기적(獵奇的)인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그러한 성격을 탐구하기에 내심으론 적지 않은 노력을 거듭하여 보았다. 악의 아름다움, 혹은 선의 아름다움 - 그것보다 악이라든가 선이라든가, 그러한 모랄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우선 강렬한 견잡을 수 없는 성격의 매력 - 그렇게 나는 막연히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이나마, 이러한 매력에 휩쓸려서 나 자신을 송두리째 그곳에 파묻고 의탁해 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 - (p. 138)

‘나’는 영화 ‘페페 르 모코’를 보고 나오다가 친구인 신문기자 박군을 만나서 신문기사거리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계집 장사를 하는 권가와 서가의 섬뜩한 싸움을 이야기해 준다. 박기자는 ‘나’에게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자를 갖기 위해 치열하게 칼부림을 한 권가와 서가의 이야기가 소설이 될만하느냐고 묻는다. 그 말에 ‘나’는 ‘두 사람의 성격이 합친 것만큼 강렬한 놈, 그런 것이면 나도 흠뻑 반해 보겠는데’라고 읊조린다. 이 말을 들은 박기자는 바로 그 강렬한 성격에 대한 갈망이라는 게 현대인의 피곤한 심경이라고 단언한다.

‘악에의 매력, 강렬한 성격’에 대한 지향은 삶의 미학화를 통해 열정적이고 생기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미를 주체 구성의 중심 매개로 삼는 심미주의적 주체의 구성은 무기력과 비정력적인 삶에 생기와 활력, 소생을 복원시키려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식민지 권력은 식민지의 주민들을 통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동시에 식민지적 질서 속에서 각 개인들을 스스로 그것을 유지, 재생산 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로부터 중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각종 규율들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근대적 규율은 점차 군사적, 경제적 총동원체제의 형성에 필요한 사회

적 기반의 형성과 결합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당시는 카프 시기의 사회주의 이념이 가지고 있던 절대성을 대신하여 파시즘이 또 다른 하나의 이념으로서 절대성을 대신하게 된 상황이었다. 민족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이었던 카프의 정신적 기반은 여전히 전향자와 비전향자들에게 끊임없이 양심의 문제로 남아 완전한 주체의 성립에 균열을 남겼을 것이다. 그러나 카프 해산 이후 명목적인 운동이 억압된 상황 아래에서 당면한 생활의 문제는 가족 안의 남성이자 가장으로서 주체를 발견하게 했다. 그러한 배치 속에서의 주체 재정립은 결국 절대성을 가졌던 카프 시기 이념의 자리를 다른 강력한 이념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파시즘적 미학은 남성 주체의 권위 불안과 새로운 권력에 대한 열망에 합세하며 활력·정력의 수사로 공허와 허무를 채워 넣었던 것이다.

4. 결론

전향소설의 중심인물은 대개가 남성 전향자이다. 그리고 그 남성 주체들은 하나같이 무력하고 심리적인 불안을 지녔다. 위기의 상황 속 남성 주체는 여성에게 권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남성 주체의 권위 불안은 남성 매저키즘적인 자학의 방식으로 식민지적 충격을 다룬다. 그리고 전향소설은 <아버지>가 지배해온 전통적인 부계 사회와의 단절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전향소설에서는 대개 아버지가 부재하며, 존재한다하더라도 현실과의 타협이나 전향의 지표로 등장한다. 타락한 아버지에 대한 결별 선언과 새 세계에 대한 아들의 꿈은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관계를 역학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아내나 누이같은 여성들이 맡아 권력장의 형성을 오이디푸스적으로 재현한다. 전향 작가나 비전향 작가들은 전략적

13) 김진균, 앞의 책, p. 25.

로 자기의 고발과 정당화의 방어기제를 '갈등'과 '열망'이라는 이중적 욕망의 투사를 통해 구성해 내는 양가성을 지닌 채 주체 불안과 위기감을 극복하려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담론 속에 전향한 주체는 새로운 주체성으로 재정립되었다가 해체되고 무력감 속에 병적 자의식으로 침잠하기도 하는 양상들의 심리적인 딜레마 속에 빠져 있다는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주체성은 섹슈얼리티, 신체, 젠더와 권력의 상호 교차 속에 형성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향소설에서는 여성 주체를 남성 전향자이자 등장인물들의 주체 형성에 중요 인자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의 신체는 그저 물질성의 재현으로 취급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전향자이자 남성인 관찰 서술자는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저항>과 <타락화>의 수사를 취하고 있다. 이로써 가부장적 남권주의와 제국주의적 식민지라는 이중의 권위 속에서의 주체 불안은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적 이미지로 재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성 주체들의 권위에 대한 불안과 열망은 그들이 타자화 하는 여성 주체에 대한 지배 형식을 통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드러내는 방식은 남성 주체 자신에게 가해지는 매저키스트적인 글쓰기와 위장된 순응주의적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신들을 무력하고 병적인 자의식의 실패한 남성들로 그리면서 역으로, 더 살아야 할 실존의 의의를 얻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 자연히 유약하고 여성화된 남성은 활력과 야수적인 과시즘 미학을 소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필자 : 서강대강사

Abstract

The meaning on Male Masochism of Conversion
Novels in the Late 1930s - Centering on Kim, Nam-
Chyun and Han, Sul-Ya -

Han min-ju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method of subject-construction as the power and desire of unconscious of conversionist under the power of Empire, and further must inquire how the problem of Gender was working and reconstructing. Because of the conversion of Korean turned to Japan, the changing directions are go against an intellectual's conscience. There were reason about what conversionist can't easily escaped. Because of Subject of colonist can't escaped from the power-image of Empire, or Empire are formation the colonial male subject's identity by the way joining forces ideology of Phallicism.

Han, Sul-Ya and Kim, Nam-Chyun's conversion novels are founded female's body and wife's sexuality on the ground of male subject. The female's body, male's gaze object, were constructed through a course of the secular and debasement. Power are intervene in this course, and the power operation as a constituent energy as a defensive measures - in order to is justified self as counter-power. Only chance which the woman are able to play as hero in history, is moment in the collapse of the masculine and patriarchal system. A male subject was represented authorial insecurity after

conversion as the gender-oriented narrative structure. That was connected political misogyny form. This aspect represented with a bodily falling process and abhor form. Male subjectivity in conversion novels was formed ambivalence and defense mechanism of their power and authority.

key word : conversion, gender, body, sexuality, masochism, vitalism, fascism aesthetics

▶ 위 논문은 10월 15일 투고 완료, 10월 30일 심사 완료, 11월 15일 게재 확정